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4시 48분



목차

목차	2
사곡4리	3
마을유래(□□)	3
지명유래(□□□□)	3
물이 귀한 마을	3
선착장	4

대포1리	대포2리	대포3리	대포4리	덕양1리
덕양2리	덕양3리	덕양4리	덕양5리	덕양6리
관기1리	관기2리	관기3리	복산1리	복산2리
복산3리	복산4리	복산5리	복산6리	봉두1리
봉두2리	봉두3리	사곡1리	사곡2리	사곡3리
사곡4리	죽림(1~17리)	현천1리	현천2리	현천3리

마을유래(☒☒)

이 마을에 제일 먼저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에 충청도에서 청주한씨(☒☒☒☒)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다.

그러나 마을뒤의 공터에는 임자없는 무덤들이 여러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무구장들이 아마 청주한씨(☒☒☒☒)들의 묘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.

그 뒤 1698년대에 경북 칠곡(☒☒)에서 인동장씨(☒☒☒☒) 만홍(☒☒)이가 이주해 왔으며 같은 연대에 영암(☒☒)에 살던 김해김씨(☒☒☒☒) 명언(☒☒)이 처가 고장인 울촌 상여(☒☒☒☒)에 와 살다가 화재를 만나 가재를 몽땅 태워 버리고 이 마을에 이사해 와 살았다고 한다.

그리고 해방되던 1949년 소라면(☒☒☒) 죽림리(☒☒☒)에 살던 의령남씨(☒☒☒☒) 울우(☒☒)가 바다를 따라 이곳으로 정착해 왔으며 거의 같은 때에 들산(☒☒) 평사(☒☒)에서 진주강씨(진☒☒☒) 학봉(☒☒)이 들어온데 이어 경주정씨(☒☒☒☒) 준향(☒☒), 밀양박씨(☒☒☒☒) 팔규(☒☒)가 계속 이주해 옴으로써 마을이 제대로 형성돼 현재 40여가구에 인구 150여명의 주민들이 마을앞 바다를 가꾸면서 사이좋게 오순도순 살고 있다.

지명유래(☒☒☒☒)

이 마을은 마을이 형성될 때 부터 오늘날까지 활궁(☒)자와 목향(☒)자 궁향(☒☒)으로 일관하여 왔다. 그것은 마을의 생김새 자체가 마치 활같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라는 것이다.

왜냐하면 이 마을의 지형은 흔히 궁궁을(☒☒☒☒)이라 하여 구부정한 활(☒)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또 마을 서쪽 모퉁이로 들어가면 거기도 활같이 생긴 곳이 또 있어 결국 이 마을은 두개의 활이 있다 해서 궁궁(☒☒)이 되는 셈이고 앞으로 바라다 보이는 육달천과 섬달천이 활줄같은 형국을 이루고 있어 활같이 보인다는 것이다. 그리고 울을(☒☒)은 새가 두 마리 있다는 뜻인데 이것 또한 묘하게 섬달천 넘어 바다 가운데 보일까 말까한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름이 새섬이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섬이 있음으로 울을(☒☒) 즉 새가 두 마리 있다는 것이다..

물이 귀한 마을

옛날부터 이 마을은 물이 귀하여 가까운 사곡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사곡에서는 지하수를 땀 동네에

빠주면 자기 부락의 물이 귀해진다고 한사코 물을 안주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할수없이 1km 떨어진 망마산(망마산) 기슭의 망곡에서 지하수를 끌어와 집집마다 수도전을

선착장

이 마을 앞은 바로 바닷길 만큼 여태까지는 마을 앞길이 좁아 겨우 두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을 정도였다. 그런데 1989년 여천군 당국에서 바다를 막아 마을앞길을 넓혀주고 또한 선착장까지 만들어 주어 이 마을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